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2480.24	코스닥	816.75
	(+0.89)		(+2.22)
금리	3.242	환율	1338.60
	(-0.037)		(+1.60)

스마트폰 ‘脫중국’
삼성·애플
인도로 출격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세계 경제 시한폭탄 재각재각... ‘2011년 악몽’ 재연되나

〈美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전례〉

美 ‘디폴트’ 위기 고조

美 부채 한도 4경1510조원
연방정부 한도 상향 실패시
내달 1일 디폴트 발생 전망

2011년 ‘부채협상 파행’ 당시
코스피 17% 폭락 등 충격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이르면 오는 6월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 3810억달러(약 4경1510조원)다. 이에 미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연금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피했다. 그러나 이달 중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72.59bp(bp=0.01%포인트)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3의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뜻한다. 즉,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이 커져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韓日 경제인들

한일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앞서 (앞줄 왼쪽부터)류진 풍산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앞서 (앞줄 왼쪽부터)류진 풍산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01%포인트)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3의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뜻한다. 즉,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이 커져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팩트셋 데이터

를 활용해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CDS 프리미엄은 독일의 약 50배, 불가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멕시코·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약 3~8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한국 등 주변국으로선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악재라는 것. 특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 한국 등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1년 위기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채 협상이 파행되면서 디폴트 위기가 커진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AAA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에 속했으나 2011년 부채한도 대립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해 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됐다.

〈8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사설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
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앵커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1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면에 계속〉

metro[®]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지역간 과도한 갈등·국민불안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후 12시 15분에 재가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지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지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

과 불안감이 지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됐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간호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LG화학, 전지소재 앞세워 매출 40조 키운다

글로벌 톱 종합전지소재회사 도약 혁신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 육성

LG화학이 ‘글로벌 톱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전지 소재 매출을 2022년 4조7000억원에서 2030년 30조원 규모로 6배 성장시키겠다는 ‘3대 신성장동력’ 매출 목표를 제시했다. 전지 소재 매출 목표는 기존 목표 대비 9조원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 소재와 혁신 신약까지 매출 목표를 상향해 3대 신성장동력 매출의 총합은 40조원에 달한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열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코리아 & 글로벌 전기차·이차전지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새로운 매출 목표를 밝혔다.

LG화학은 전지 소재를 포함한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3대 신성장동력의

매출 비중은 21%에서 57%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톱 글로벌 과학 기업’으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지속가능 전략에 기반한 신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왔다”며 “LG화학의 중심축이 3대 신성장동력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근본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

LG화학은 2030년 매출 30조원 규모의 글로벌 톱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양극재 외에도 분리막, 탄소나노튜브(CNT) 등 부가소재 사업을 육성하고, 퓨어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등 신소재 R&D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시장·기술·메탈소싱 3개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

보하여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장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한·중·미·유럽으로 이어지는 양극재 글로벌 4각 생산 체계를 갖추고, 2023년 12만톤의 규모의 생산 능력을 2028년 47만톤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회사 LG 에너지솔루션 등 신규 글로벌 고객사 비중도 확대해 40% 수준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기술 영역에서는 파우치, 원통형 배터리 중심 하이니켈양극재 제품군 확대, 니켈 비중 95% 수준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단입자 양극재 기술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객사 니즈와 성장하는 전기차 대중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고전압 미드니켈(Mid-Ni), 리튬인산철(LFP), 망간리치(Mn-Rich) 등 다양한 중저가 양극재 제품군으로 사업 확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민주 “김남국에 자료 요청했지만 못 받아... 탈당 후 재차 요청”
▲박지원 “김남국 자진탈당, 스스로 단두대 올랐선 것”
/사진 뉴시스

▲野 김성주 “尹 대선공약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정치 코미디”
▲輿 김웅 “김남국 보다 더 수상한 것은 이재명... 코인공동체”



▲정의당, 권익위에 ‘코인 조사’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사진 뉴시스
▲野,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 輿 퇴장